

날짜 2025-01-26(D1)

본문 눅24:36-43

번호 2581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18, '성도들이 찬양하자'

시작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송 찬18, '성도들이 찬양하자'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눅24:36-43

설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찬송 찬165, '주님께 영광'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구국(救國)에 힘쓰자

현 시국은 선과 악, 천국과 지옥 간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우와 좌의 형태로 진행 중인, 그래서 그 결과는 나라의 국운,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그리고 주님의 새 교회가 시작되기 전, 이를 막고자 하는 지옥하교의 총력전 상황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에 실제로 동참합시다.

## 헌금기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주일, 본문은 누가 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네 번째 본문인 36절로 43절, 제목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평강에 대한 풀이, 곧 ‘평강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아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내적인 평화이며, 안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리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하신 이 말씀이 특별히 제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육신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과, 주님의 요청으로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 곧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뿐, 아직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 문제가 되는 진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말입니다. 그것이 불에 구운 생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고, 앞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자들처럼 제게도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